

# 기름더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김 용 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검역과

## 1. 추진 배경

2007년 12월 7일 07시 06분 삼성중공업의 11,800ton 급 해상크레인이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을 실은 홍콩 국적의 원유수송선 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와 충돌하여 12,547kl 원유가 쏟아져 바다와 육지의 자연과 재산은 물론 사람의 건강에 미친 피해와 영향이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등 6개 시·군과 전북·전남의 일부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어업인의 영어·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용자, 상환유예, 기한연기 및 이자감면과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하였다.

그러나 어장 환경의 심각한 파괴는 어업인들 삶의 질을 급속히 악화시켜 생활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수입원의 상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해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확대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유류오염으로 망연자실한 어업인들은 생계 터전을 잃고 일시적 지원에 만족할 여유가 없으며,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피해보상만을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어업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삶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어장환경 복원사업과 아울러 새로운 소득창출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공기관에 강력하게 사업 지원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3부(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2008. 3. 14. 시행)을 근거로 마련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2009. 11. 13.)」에 의거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지원하게 되었다.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은 훼손된 수산자원 또는 생태계를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을 가지는 어장 및 수산생물의 산란·번식어장을 복원시키고 연안어장, 마을어장, 양식어장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폐기물 수거 및 객토·경운 등)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복원시범단지 지

정·운영, 단계별 자원회복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회복 촉진 및 가속화하기 위한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회복기법의 기초 연구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 2. 그간 추진사업 관찰 및 평가

### 1) 미래 생명산업 기지로서 '갯벌' 재발견

태안의 유류오염사고는 수산관련 기관·단체·업계에 슬한 시련과 아픔을 많이 준 반면, 얻은 것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 '갯가의 넓은 땅'인 갯벌과 갯벌의 바닥에서 이어지는 텃밭과 같은 마을어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캐나다동부연안, 미국동부연안, 아마존유역, 서해, 북해 등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한강, 중국 양자강·황하 등으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영양염류 및 미네랄이 높아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국민이 갯벌의 가치를 '어류 생산 및 서식지 기능', '오염정화 기능', '심미적 기능(경치, 해수욕장 등)', '홍수조절 기능', '폭풍조절 기능' 등만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친환경 먹거리 생산기지', '새로운 일자리창출기반(어업, 관광 등)', '신기능물질의 보고', '세계 우수 「황금갯벌」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진정한 갯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 2) 환경개선으로 생태계 회복

유류오염의 확산을 막고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관련단체를 중심으로한 시민사회단체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원유 회수 및 제거작업을 한 덕분에 빠른 응급방제를 하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으나, 피해지역 연안

생태계는 여전히 오염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으며, 오염된 어장을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자연치유에 맡길 수 없는 시급한 사정과 생계 터전의 어장환경 회복을 앞당겨야 하는 절박감에 어업인들은 신속하게 환경개선사업이 지원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물학적, 물리적(경운·준설·투석 등), 화학적 방법(저질개선제 살포) 등의 방법으로 유용수산생물의 최적합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생산과 번식이 가능하게 어장을 조장하는 사업을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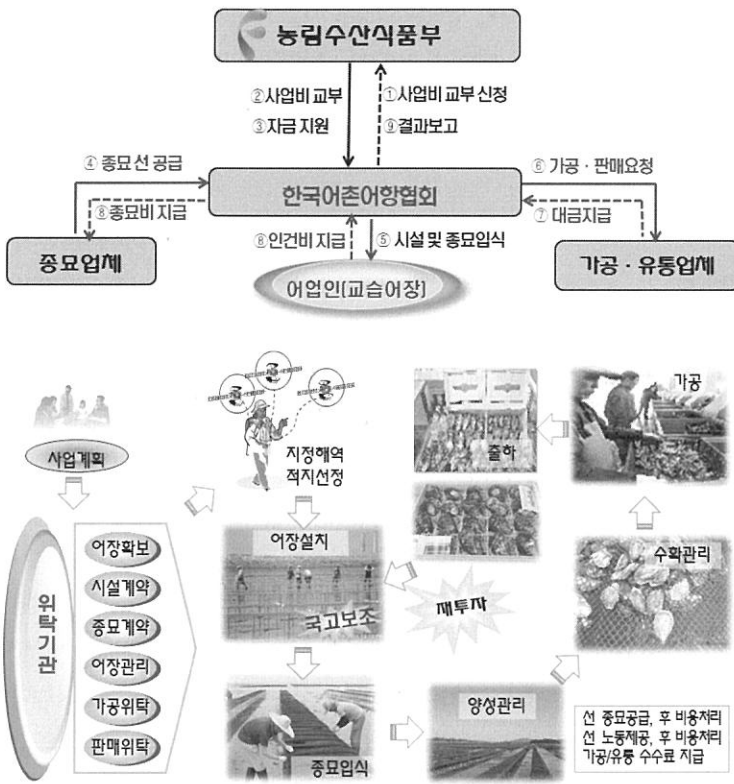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류오염으로 생산이 격감된 참굴과 바지락을 복원하기 위해 자연 종묘 생산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우량 모패를 입식하므로서 굴은 모패를 이식한 지점과 가까운 60~90cm 수층에서 많이 나타났고, 바지락은 1~7mm크기의 치패가 m<sup>2</sup>당 평균 2,231패가 발생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한국농어민신문, 2011. 5. 23.)한 바 있다.

### 3) 단기간 고소득 갯벌참굴 사업개발·지원

그간 갯벌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의 소득은 다른 어업의 어가에 비해 크게 낮고 소득의 격차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는 갯벌의 면적 축소, 갯벌 환경 악화, 이어(離漁)현상 및 어촌 노령화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갯벌 환경을 되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및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하에 새로운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단기간내 고소득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소득 사업은 '무급이(無給餌)·무연료(無燃料)·친환경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이 가능한 어업'이고 협동정신의 근간인 공동생산·출하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갯벌참굴 시범사업으로서 중패는 입식 3~4개월 이후부

선진 갯벌참굴 복합어업모델 사업



그리고 갯벌은 개방 환경으로 육상기인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훼손되거나 방치된 마을어장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규모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원 창출을 하기 위하여 지역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서해안에 만연해 있는 “쪽불이” 등 해적생물의 효율적인 구제방법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바지락 등 유용생물의 종패가 지속적으로 번식·발생되도록 어장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 꽃봉오리 같은 ‘해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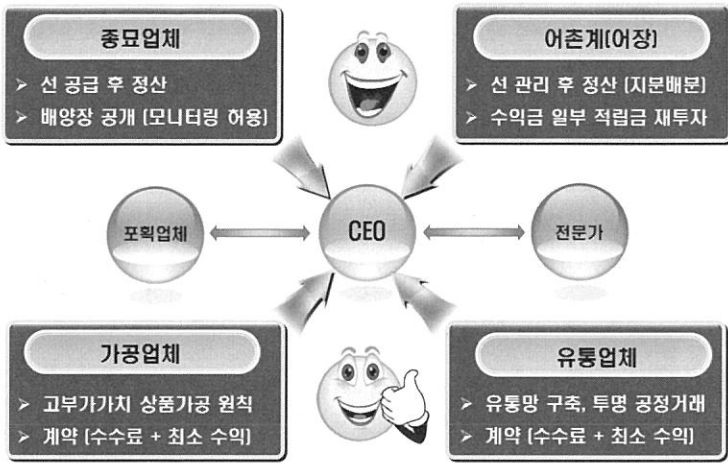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대량수출의 잠재력을 가진 해삼에 대하여 생산·가공·유통 등을 연계한

체계를 갖추어 명실공히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가 제시한 자율적으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모델사업의 새로운 협동조합 운영형태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많은 미완성 사업이 되고 말았다.

국내 해삼의 중요생산이 대체로 불안정한 상태이나, 일부 중요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R&D 과제로 추진하여 생산한 종묘(1cm)를 지자체 연구소 또는 민간배양장 등에 분양하여 3~5g 크기의 형질이 양호한 치삼(稚蔘)까지 육성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별된 우량종묘를 어장관리자가 잘 되고 있는 어장을 선정해서 대량생산의 가능성 등 조사·분석·평가하는 형식의 시범사업을 거쳐 고소득 신성장동력 사업모델로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터 생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종패를 중요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입식시키고 상품 출하 후 종패 대금을 정산하는 형식으로 종묘를 선 공급하도록 한다. 가공과 유통(수출)은 일정기준의 시설과 유통망을 갖춘 가공·전문업체가 일정 수수료만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며, 공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중요업체, 어장관리자, 가공·유통업체가 개별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생산·가공·유통의 복합경영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홍콩에 판매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을 유지하면서 수출되고 있고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갯벌참굴 복합모델사업은 21C 우리나라 수산업을 이끌고 나갈 신개념의 복합 산업화 모델이라고 모든 참여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소득 클러스터 해상사업 모델



5) 계층간 갈등과 반목으로 사업 공기 지연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은 어업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당해연도 몇 개월 내에 준공해야 하는 촉박한 공기일정을 감안할 때 전문가를 통해 추진이 불가피하여 설계업체가 제시하는 사업과 어촌계 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사업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소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유용생물 서식·번식조장 사업 등의 설계방향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의견 조정과 설계내용을 재 수정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착

공이 지연되어 사업시기(비조업시기)에 맞춘 사업준공이 되지 않고 이월사업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3. 새로운 희망사업의 꾸준한 발굴·지원 필요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어촌의 삶과 어업인들의 유대관계가 지속되어 공동체가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인 마을어장의 환경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할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전의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지속된 공동생산-공동분배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근 어촌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별생산-개인판매 형식을 벗어나 어촌계 내 젊은이들과 고령층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공동사업적 성격의 사업

을 개발하여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일관성있게 집행 관리할 수 있게 기획입안한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과 임무를 성공단계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숙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어촌계별 회의를 거쳐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류오염의 피해가 심각하였던 지역을 집중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①현장 진단→②검토·평가→③사업지역 선정→④사업비 배분 등의 절차와 과학적이면서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산증·양식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어업인들로 하여금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게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등 사전 계층간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단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세대 계층에 적합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일부 어업인들이 자포자기하거나 방관자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을 감안해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사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종(바지락, 꼬막, 백합, 가무락, 새꼬막, 가시파래, 개불, 함초, 갯지렁이 등)의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①시범연구(R&D)사업 → ②Pilot사업 → ③복합 모델사업 등 단계별로 육성하는 것이 갯벌을 옥토화(沃土化)하여 후손들이 갯벌의 가치를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단하게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실현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생명체와 더불어 생활하는 많은 어업인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고 '태안의 기적'을 만들어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힘, 즉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저버리지 않는 순수 수산인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력있는 선진어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흘러가는 현시점에서 관계기관·단체·업계 및 어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상대대로 이어온 터전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협력하였던 그간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는 “유류오염사고

와 우리의 역할” 또는 “유류오염사고와 우리가 한 일”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대통합 한마음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시의적절하고 대국민 사업홍보 효과가 크다고 본다.

신성장동력 지원사업 대상 유용 수산생물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위기를 기회로”라는 가치적인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성과와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의식함양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지역 공동체 문화가 하루빨리 싹트고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산·학·연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유희유 역할은 물론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여 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